

# 설문대할망 관련 전승물의 가치와 활용

이 창 식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I. 머리말

II. 제주 돌과 신당 관련 설문대  
할망유산

III. 설문대할망신화의 활용과 관련  
전승물 보존 방향

IV. 맺음말

### <국문 요약>

이 글은 돌 관련 신화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조의 사례로 신당을 포함하여 설문대할망 수용을 보여준 제주돌문화공원의 향토성, 예술성, 미래성을 주목하였다. 신당의 장소성은 신화, 본풀이, 의례 등을 소통의 공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으로 제주신화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확장과 보존, 활용 등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돌문화공원으로 보아, 신화의 현장, 신당은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돌 관련 신당, 신화, 심방 등을 묶어서 전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법이 필요하고, 이 틀 속에서 현대적 계승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설문대할망의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가치 공유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제주돌문화공원에는 감성, 재미, 환상 등 창조성과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소스콘텐츠 확보는 정체성의 사실 근거와 제주문화 기반 위의 기획에 좌우되고 인문학적으로 정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방면의 전문가 의견과 산학연관 합동연계사업이 동시다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사람들의 신화감성의 성격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부각시켜야 한다.

제주여성신화에는 한라와 탐라 형성의 여신격의 특성은 다양한 화소의 매력적인 유전자로 인해 생산-포용 키워드가 매력적이다. 설문대할망설화를 살린 제주돌문화공원은 테마파크형 신화박물관이다. 설문대할망제는 세계신화축제로 진전하기 위해 제주돌문화공원 때문에 희망적이다. 신화적 상상력은 제주돌문화공원이 보여주고 있듯이 관광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는 추세다. 신당, 신화, 제주돌문화공원과 설문대할망신화 키워드는 제주신화의 세계화에 있다. 세계 신화유산의 메카로 제주섬, 제주돌문화공원을 신화스토리텔링으로 마케팅해야 한다. 돌과 여성신화의 상생적 연관을 통해 제주신화의 새로운 국면 읽기를 분석해 보았다. 제주도 신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의 전략이 상생되어 미래로 추진되어야 한다. 신화 관련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보존책이 제기되었다.

주제어: 신당, 설화, 설문대할망, 제주돌문화공원, 무형문화유산.

## I. 머리말

제주도는 화산섬이기에 돌과 관련된 유적유산이 특이하다. 삼다도의 돌 이미지는 마치 척박한 땅의 한계만 강조된 인상인 듯하지만, 제주인의 상상력과 연계하면 새롭게 보이는 국면이 있다. 돌유산의 활용 전통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 고유문화의 정체성과 아울러 제주인의 가치관, 그리고 생태적 감성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상징 전승물이 제의(祭儀) 장소로 신당(神堂)과 이와 관련된 구술상관물이다. 신당 제의구술물로서 제주신화의 현장문맥에는 돌, 신당, 제의, 구비신화, 사람들의 인성이 서로 맞물려 있다.

신당은 신성한 공간으로서, 제주도 마을 공동체 의례의 공간이기도 하다. 신당은 신들의 마당이면서 집이다. 신당에는 본풀이 무가(巫歌)가 구연되었고, 전승 주체인 제주인의 지극정성이 깃들여져 있으며, 신들의 굿, 굿놀이가 신바람을 내었다. 아울러 삶 속에서 신들의 영험도 확인된다. 본토 신당의 원형이 심하게 변했거나 소멸하였다면, 그나마 제주도 신당 원형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흑백사진처럼 그 곳 그 자리에 남아서 신화의 유전인자를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복합적 유무형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값지다.

신당은 제주인의 오래된 영성(靈性)의 현장이다. 본풀이 공연은 본래 신당의 마당에서 구연되었다. 신당은 제주신화인 ‘본풀이’의 공연터였고, 신과 인간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다. 큰굿 할 때 제물(음식정성)도 엄청 차려졌던 제터였다. 어머니, 할머니의 정성-제주 본풀이 신격 할망 캐릭터와 해녀집단도 닮아 있다. 이 깃들여 있다. 그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공간이다. 신당과 집을 연결하는 신길 올레가 있다. 제주도 신당의 위치와 유형으로 보아 돌과 긴밀히 맞물려, 신당의 영역은 올레스토리와 신화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신화의 장소성(場所性)은 신당의 분포와 기능과 연관된다. 뒤집어 말하면, 신당의 원초적 신화성은 애초부터 제주신화의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발상은 ‘제주돌문화공원’의 조형설치예술로 승화되었다. 그 매개체가 제주도 ‘돌유산’이다. 공원에는 설문대할망신화의 증거현장처럼 원초적으로 만나는 고향성과 진정성이 있다.<sup>1)</sup> 제주 사람들의 상상력 소산은 과거에도 중요하였지만 미래에 더욱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도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인 탐라문화권(耽羅文化圈)을 응집하였고, 미래에로의 소통성을 중시하면서 설계되었다.

제주도다운 성향과 본질을 잃어가는 흐름에도 오히려 돌과 신화의 융합적 만남을 통해 오래된 미래의 테마파크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 신당과 신화에 대하여 돌 관련 인위자원과 전승자원을 통해 예술적 형상화의 일단으로 선보이고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은 신화적 상상력과 감성으로 응집한 명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신화의 테마파크 형상화는 앞선 지역자원의 세계화 사례다. 진행 중인 이 대형프로젝트는 제주만의 돌물질자원에다가 신화스토리텔링이 절묘하게 상생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sup>2)</sup> 이 글은 추진 결정된 설문대할망복합관(가칭)의 방향과 제주신화의 정체성을 전제로 돌의 민속적 미학과 신화학의 새로운 트렌드 측면을 짚어내는 데 있다.

## II. 제주 돌과 신당 관련 설문대할망유산

제주인은 일찍 돌을 삶 속에서 여러 용도로 썼다. 제주도 사람들이 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생활문화사의 의식주 전반에서 확인된다. 특히 돌을 재료로 삼아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사례들이 흔하다. 의생활

1)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11, 11-23쪽.

2) 백운철, 「설문대할망제를 되돌아보며」,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2012, 4-11쪽.

도구로 다듬잇돌(砧)을 만들어서 사용한 사례는 제한적이다.<sup>3)</sup> 제주도의 돌은 구멍이 숭숭 나 있어 적합하지 않았기에,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는 다듬잇돌에서 옷을 다듬지 않고 손으로 다듬는다(儻衣無砧 以手敲打)고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두 여성이 옷감 천을 양쪽에서 마주잡고 앉아 밀고 당기며 옷감을 다듬었다. 더러 나무로 만든 다듬이판 위에 올려놓고 다듬는 수도 있었다. 이런 판을 '안반'이라고 하였는데 안반은 옷 다듬이질은 물론 떡가루를 편편하게 미는 판으로도 쓰였다.<sup>4)</sup>

이처럼 돌 사용이 지역적 특성을 드러낸다. 돌쟁이의 솜씨로 돌하르방, 말방애, 물허벅 등 무수히 전승된다. “맷돌에 해당하는 ‘꺾레’는 가장 대표적인 식생활 도구이다. 비록 돌로 만든 것이기는 해도 ‘연자매’와 ‘절구통’은 나중에 유입된 것들이다. ‘돌화로’는 난방용구로 쓰이기보다 제사에 쓸 적이나 목을 굽는 취사 용구로 쓰였다. 난방용구로는 ‘봉덕’(부섭)이 있었다. 조명용구로는 ‘등경돌’(燈檠石)<sup>5)</sup>이 쓰였다. 모두 한반도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것들이다.”<sup>6)</sup> 제주도 사람들은 주변 흔한 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다. 집을 짓는 데도 돌을 이용하였으며, 집 울타리도 돌로 쌓았다. 부엌에서는 돌을 세워 솔덕을 만들고 불을 때었다.<sup>7)</sup> 돌의 용도는 이처럼 일상에도 잘 쓰였고, 다른 측면에서도 이용되었다.

제주 사람들은 생활용 용도를 넘어 돌을 신의 대상이나 신성한 영역에 대한 표시 곧 신당으로 드러내었다. 신당은 마을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터이면서, 동시에 그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이 제터를 제주도에서는 흔히 ‘할망당’이라고 부른다.<sup>8)</sup> 마을을 지키는 할망,

3) 제주돌문화공원 백서, 『돌문화전시관 영상물』, 2005, 3쪽.

4) 이윤형·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137-138쪽.

5) 소나무의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 조각인 관솔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솔각’이라고 한다. ‘솔각’을 올려 놓고 불을 밝혔던 돌기둥이다.

6) 제주돌문화공원 백서, 『돌문화전시관 영상물』, 2005, 3쪽.

7) 윤기혁,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2008, 24-25쪽.

당신(堂神)을 돌로 형상화하거나, 그 당신의 집을 돌담으로 둘러싸고 나무 또는 숲과 어울리게 하였다. 심지어 바위굴인 궤도 신당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신목과 암석에는 지전과 물색 및 실이 걸려 있고, 이러한 신체(神體)는 생업활동과 호적 유지, 죽어서 저승에 기록되는 장적(帳籍)을 관장한다. 이를 행위로 표출하는 과정이 당굿인 셈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본향당’이고, 그 의례가 ‘본풀이’의 굿이고, 성소(聖所) 중심의 ‘신화’로 정리된다. 신당은 제주 마을사람들은 본향당 계보로 삶을 지탱시켜 준 ‘우주’ 또는 ‘할망의 중심’이라고 사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삶의 기층에 돌의 민속생태적 사유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부대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갔다가 육지 처녀를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처녀는 육지에서 심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데리고 내려왔더니 여기서. 부대각 집안에서는. 양반 집안인데. 심방 노릇 못한다라고. 그 처녀를 바깥에 활동을 못하게 하고 가둬놨습니다. 이 사람은 심방 일을 해야 풀어지는 사람인데 갇혀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울음소리가 그냥 그대로 나고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일가친척 피붙이 하나 없고 사실은 부대각을 따라왔다고 하지만 정혼도 아니었고. 제사를 모셔줄 자손이 없는 거죠. 그래 마을 사람들이 그 혼령이 너무나. 마음 아픈 혼령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제사를 모셔주기 위해서 마을에서 조상으로 모셔 산 그래해서 그 육지처녀의 혼을 모셔서 일레할망으로 모셨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뒤에 여기 합당이 된 것이죠.(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하로산당 신화)<sup>9)</sup>

제주신화는 신당, 돌의 신성적 기능을 떠나서 그 상상력을 말할 수 없다. 실제로 석물형(石物型), 위패형(位牌型), 미륵형(彌勒型)은 돌을 다듬거나 새겨 신의 성격을 형상화하고 있다. 폭낭과 돌담, 당담과 물색, 돌담과 텃마당 등이 어울려 신당의 금기적인 풍경을 드러낸다.<sup>10)</sup> 돌의 소

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69쪽.

9) 이창식 외, 『한국 해양 및 도서 신앙의 민속과 설화』,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6, 535쪽.

10) 장주근, 『민속사진에세이』, 민속원, 2004, 72쪽 본풀이 사진과 118쪽 송당 사진 주목.

재-이원진, 한치윤, 김석익 등의 문헌기록에서 나무와 돌 따위를 섬겨 음사를 베풀다고 함-가 신의 영역에 대한 존재감과 경외성으로 변주된 것이다. 돌의 불변성에 점차 상상력을 붙여넣은 주술적 사유에 기인한다. 오랜 세월 마음을 담아 돌 신체를 위하고 이야기로 풀어 전승해온 것이다. 마을 입향조와 설촌 내력에 따라 신당의 기능과 전승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신격 좌정, 제일에 따른 당굿, 할망당신화 구현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전통적 신당의 돌 이용 방식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돌 테마파크로 현대적 향토적 조형미를 수용하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실제 가시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면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제안 정도 머물렀을 사례<sup>11)</sup>-은 설문대할망신화를 형상화한 신화박물관인 셈이다. 제주도 관광패턴으로 보아 혁신적 발상이다. 돌 테마파크에는 본풀이 본향의 주요 신당(神堂)과 이야기를 공원으로 형상화 또는 재현해 놓았기에 제주신화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상징한다. 신화의 제주적 감성과 상상력을 형상화한 제주돌문화공원은 미래의 제주도 상징명품이다. 이 장소성 자산의 가치는 매우 높고 제주의 상징적 테마파크 구실을 하여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신화마당이며 신화고향이다. 제주도 한라산 동측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조성되었다. 제주돌문화공원에서는 신들과 놀 수 있고, 예전 사람들과 어울려 재미를 누릴 수 있다. 제주 신화유산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돌 중심 융합형 테마파크다. 제주의 돌, 흙, 나무, 철, 물을 주제로 100여만 평에 종합적인 관광문화마당을 조성하였다. 제주의 설문대할망과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세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이루어 가는 초석으로 활용함과 더불어 가치있는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향토 종합문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우선적으로 1단계 약 30만평을 개발하여 제주도내 각 지역에 산

11) 이창식, 「스토리텔링 활용방안」,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8, 104-105쪽.

재해 있는 자연운치석과 민속 민예품을 한 곳에 집성 관리 보존함으로써 귀중한 자원(과거 목석원 민속유물)의 소실을 방지하고 시대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제주 특유의 지역문화의 교육강화를 위한 제주돌문화공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sup>12)</sup> 제주도는 100만평의 부지 위해 창조테마형 신화공원을 만든 경우다. 가장 제주도적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념비적인 제주돌문화공원은 지금보다 미래에 그 평가론 - 백운철<sup>13)</sup>의 안목과 열정, 애정 관련 담론- 이 기대된다. 2단계 사업은 제주돌문화공원의 세계화 측면을 예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민속문화는 크게 세 층위로 구분한다. 신화, 전설, 민요, 무가, 야담, 사투리 등 인간의 정신적 요소로 나타나는 구비전승과, 세시 풍속, 일생의례, 신앙, 놀이, 음식, 그림(무신도) 등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행위전승과,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살기 위하여 유물을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도구, 건조물, 운송, 통신, 관방 등의 물질전승이 그것이다.<sup>14)</sup> 공교롭게도 제주 돌전승유산은 이 세 층위가 맞물려 있다. 제주사람들은 인생은 ‘돌로 시작해 돌로 끝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sup>15)</sup> 유형의 돌은 무형의 신화로 말을 걸고 본풀이의 노래로 가슴에 새겨졌다.<sup>16)</sup>

제주돌문화공원을 주도하는 백운철은 예로부터 제주도는 바람, 여자, 돌이 많다고 하여 제주의 특색인 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약 30년 동안 자연석과 석물을 수집하였다고 하였다. 무상으로 북제주군에 기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사라져가는 돌문화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제주 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적, 학술적 가치의 중요

12)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통합(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서』, 2003, 17쪽.

13)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단장. <제주의 돌과 제주문화의 광인-백운철> 《교육제주》 153, 2012봄, 67-77쪽.

14) 이창식,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2004, 3-7쪽.

15) 이윤형·고광민, 앞의 책, 132쪽.

16) 제주돌문화공원 백서, 『돌문화전시관 영상물』, 2005, 3쪽.



성에 대한 의식 고취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주도의 생활문화를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라 하였다.<sup>17)</sup>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 평가할 만하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다른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곶자왈’<sup>18)</sup>이라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 건축물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의 문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주의 돌문화를 중심으로 조성되어진 공간이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선정을 위해 “3년 동안 오름을 다니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설계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많은 형태를 보았다.”고 밝히면서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그리고 예술성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곶자왈 지대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원조성을 위해 기획설계부터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제주돌문화공원을 지역의 ‘청소년 교육의 장(場)과, ‘다양한 공연·예술 무대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sup>19)</sup> 생태적 발상이 우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원 부지 100만 평 중 70%는 곶자왈 지대로, 여러 오름이 펼쳐져 있다. 공원조성의 제1원칙을 환경생태 보존으로 삼았고, 이 원칙을 토대로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 미래성이 살아나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였다.

향후 제주돌문화공원에는 신화성의 설문대할망전시관이 들어서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사람이 누워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이 전시관의 머리 부분에는 대극장과 소극장이, 손목·발목 부분에는 현대미술관과 제주민속품 전시관이 배치될 계획이다. 그밖에 곶자왈 지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청소년자연학습장 및 가족휴양시설 등도 마련한다고 하였다.<sup>20)</sup> 제주

17) <제주의 돌과 제주문화의 광인·백운철> 《교육제주》 153, 2012봄, 69쪽.

18) 곶자왈(Gotjawal)은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분출되어 요철(凹凸)지형을 이루며 쌓인 현상에 의해 생긴 지하수 함양과 보온·보습효과로 나타난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

19) 윤기혁, 앞의 논문, 46쪽.

20) 백운철, 「설문대할망제를 되돌아보며」,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2012, 11쪽.

돌문화공원은 민·관의 협약에 의해 설립된 열린 박물관이며, 자연생태공원이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 많은 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다. 제주 탐방 1번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신화를 핵심테마로 조성된 제주돌문화공원에서는 설문대할망 여성신화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설문대할망제’라 하는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제의식과 각종 부대행사가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리고 있다.<sup>21)</sup> 테마파크와 설문대할망제에는 할망 상상력이 스토리텔러에 의해 소화되고 있다. 설문대할망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원형자원이다.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여성 거인이면서 여신이다. 어딘가에서 흙을 치마폭에 담아와 바다 한가운데 그것을 부으니 섬이 되었고 섬이 밋밋하여 재미가 없자 가운데 산을 만든 것이 한라산이며,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르다가 구멍으로 쉰 흙들이 만들어낸 것이 제주도의 오름들이라는 이야기들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지형을 설명하기 위한 옛사람들의 설명방식과 수단으로써 설문대할망-사만두고(沙曼頭姑)<sup>22)</sup>-이 등장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제주인의 이야기 방식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고침과 풀어냄의 솜씨로 전달하는 수법이다.

이 설문대할망설화를 분류한다면 제주할망의 원조신, 신성한 거인, 창조자로서의 거녀, 옷짜기와 사냥 및 고기잡이 태초영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 속의 설문대할망의 모습은 그런 신성성은 사라지고 희화화된 모습 또는 파편화된 인물로만 남아 있다. 다만 본능의 성적 담론은 생생력의 직능을 드러낸다.

21) <설문대할망제 발자취>,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2012, 104쪽. 제주돌문화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stonepark.com>).

22) 이원진, 『탐라지』 (푸른역사, 김찬흡 등 역)참고.

성의 상상력은 활용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놓았다. 이러한 각편들을 조합하여 신화정원형 박물관으로 형상화한 것이다.<sup>23)</sup> 몇몇 문헌에 정리된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다. 이 할머니는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하였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연(龍淵)이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서귀읍 서흥리에 있는 흥리물이 깊다 해서 들어서 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이렇게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그만 풍덩 빠져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물장오리가 밀이 터져 한정 없이 깊은 물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sup>24)</sup>

이 각편은 ‘물장오리’라는 한라산 동쪽 중턱에 있는 큰 늪지대에 대한 신비감을 설문대할망 같은 큰 거인이 빠져죽은 장소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설문대할망의 이미지가 제주 자연경관과 지명의 특성을 증명한다. 그 경승은 자연유산의 의미와 이를 향유한 제주인의 신화적 감성이 녹아있다. 설문대할망은 신화적 기억의 저편과 꿈꾸기의 진정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격(神格)이다. 이 이미지를 잘 구축한 곳이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신화정원이다. 스토리텔러로서 백운철의 예술적 표현물이기도 하다.

필자는 과거 목석원과 현재 설문대할망공원을 보면서 신화의 현장성과 역동성이 어떻게 공원화될 수 있는지 몇 가지로 파악되었다. 본풀이와 같은 풍부한 구술성, 돌의 적층적 신앙성, 신당의 제주도다운 축제성, 해녀집단의 정성 제물 공양 등이 그것이다. 설문대할망신화는 제주도

23) 김소윤, 「한국 거인설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컨셉디자인 연구 : '제주도 설문대 할망 전설' 을 중심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10, 제3장 8쪽.

24) 이창식, 「설문대할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9, 134-136쪽, 현용준 채록자료.

전역 장소성에 의한 이야기 각편으로 흩어져 있는 구술유산이다. 성산 일출봉, 영장매코지, 솔덕, 산방산, 표선, 물장오리 등에는 창세신화의 요소로서 장소증거가 분포되어 있다. 거녀신화 완성형으로 보면, 부분한계가 있다<sup>25)</sup>. 제주 전승주체는 찬탄하면서도 짙은 아픔이 배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sup>26)</sup> 이야기의 이면에는 흙과 돌, 섬과 함께한 제주 사람들의 녀이 스며있다.

① 관탈섬, 및 주변의 여러 섬 : 다리가 그 섬(여러 섬)에 걸쳐짐/② 한라산 : 할머니의 베개/③ 한내 위 큰 구멍 난 바위 : 할머니 감투, 성기/④ 제주도의 여러 오름 : 할머니가 흘린 흙/⑤ 용소(龍沼), 홍리물 물장오리 : 물고기 잡기터, 깊이 측정(빠지지 않거나 빠짐)/⑥ 마라도, 우도, 일출봉, 표선리 해안 모래밭 : 할머니 신체 부위가 닿았던 곳/⑦ 구좌읍 도랑쉬오름 분화구 : 할머니가 주먹으로 친 곳/⑧ 일출봉 기암괴석 : 할머니가 불을 켜던 등잔/⑨ 괄지리 지경 바위 : 술을 얹혀 밥을 짓던 곳/⑩ 성산과 우도 : 오줌줄기의 힘<sup>27)</sup>

설문대할망신화는 제주도 지형적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다. 거인형 설화는 신화적 진실이 감동의 지속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래지향의 여신 이야기다.<sup>28)</sup> 이 내재적 가치를 읽으면 제주도가 꿈의 신화섬이라는 랜드마크를 확보할 수 있다. 올레가 제주도 관광트렌드를 바꿨다고 하나 제주신화는 올레의 재발견과 비교될 수 없다. 감성창조의 섬, 그 경쟁의 아이콘에는 제주신화가 있다. 세계문화유산 1번지가 되기 위해 신화의 가치창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설문대할망의 브랜드는 가치창조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다. 이미 제주도돌문화공원이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교류지향 제주도의 또다른 영역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지속적 가치를 부여해 가야 한다.

25) 현용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74-78쪽.

26) 진성기, 『제주도전설』, 백록, 1993, 23-26쪽(1958. 8. 안덕면 문인길 자료).

27) 이창식, 「설문대할망」, 앞의 책.

28)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탐라문화연구소, 2011, 147쪽.

설문대할망신화를 재구하면서 예술적으로 여성신화의 감성과 상상을 꺾어낸 테마파크가 설문대할망공원이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난관과 오해가 있었다. 첫째는 신화의 종교적 역사적 선입감이다. 이형상 당시 탐라순력도(고지도)에 불타는 신당을 떠올려 보면 편견은 진행 중이다. 둘째 신화의 교육적 편견이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 한때 칠머리당굿특별전을 제한하였다. 이유는 관계자의 미신 관련 발언 때문이다. 셋째 신화, 신당, 심방등 일련의 문화적 오해다. 조선 음사 취급기, 선교사 활동기, 일제강점기, 새마을운동기 등에서 세계관 차이와 지역적 곤궁함 원인에 대한 희생양으로 취급된 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면서 신화의 유익한 진실을 지역담론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제주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신화 수용양상을 다시 읽어본다.

<설문대할망신화 중 다섯 가지 예 - 제주돌문화공원 기획 바탕>

- 산방산이 만들어진 이야기: 먼 옛날 설문대할망은 어느 날 망망대해 가운데 섬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치마폭 가득 흙을 퍼 나르기 시작했다. 제주섬이 만들어지고, 산봉우리는 하늘에 닿을 듯 높아졌다. 산이 너무 높아 봉우리를 꺾어 던졌더니 안덕면 사계리로 떨어져 산방산이 되었다고 한다. 은하수를 만질 수 있을 만큼 높다는 뜻에서 한라산(漢拏山)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다.
- 한라산 백록담 위에 걸터앉아 빨래하는 이야기: 설문대할망은 한라산 백록담에 걸터앉아 왼쪽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 관탈섬에, 오른쪽 다리는 서귀포 앞바다 지귀섬에 디디고, 성산봉은 바구니, 우도는 빨랫돌 삼아 빨래를 했다고 한다.
- 명주 100동을 구해 오면 육지와 다리를 놓아준다는 이야기: 설문대할망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몸이 워낙 거대하고 키가 크다 보니 옷을 변변히 입을 수가 없었다. 속옷 하나라도 좋은 것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제주백성들에게 명주옷감으로 속옷을 하나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어마어마한 몸집을 한 여신의 속옷을 만드는 데는 명주옷감이 무려 100동이나 필요했다. 모두들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다. 그러나 99동 밖에 모으지 못하였다. 여신의 속옷은 미완성이 돼버렸고, 다리를 놓는 일도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흙을 계속 나르다 터진 치마구멍

으로 흘러 흠들이 여기저기에 쌓여 360여개의 오름들이 생겨났고, 설문대할망이 육지와 의 다리를 놓던 흔적이 조천과 신촌 앞바다에 남아있는데 육지를 향해서 흘러 뺏어나간 바위줄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 설문대할망은 자신의 키가 큰 것을 늘 자랑하였다는 이야기: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이 할머니는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 하였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연(龍淵)이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발등에 닿았고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홍리물이 깊다 해서 들어서 보니 물이 무릎까지 닿았다. 이렇게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그만 풍덩 빠져 죽어 버렸다는 것이다. 물장오리가 밑이 터져 한정 없이 깊은 물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 오백장군 이야기: 한라산 서남쪽 산중턱에 영실이라는 명승지가 있다. 여기에 기암 절벽 들이 하늘높이 솟아 있는데 이 바위들을 가리켜 오백나한(五百羅漢) 또는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 부른다. 옛날에 설문대할망이 아들 오백형제를 거느리고 살았다. 어느 해 몹시 흉년이 들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백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죽 솔에 빠져 죽어 버렸다. 아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퍼먹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정말 죽 맛이 좋았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막내 동생이 죽을 먹으려고 솔을 젖다가 큰 빠다귀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빠져 죽은 것을 알게 됐다. 막내는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어머니 죽을 먹어치운 형제들과는 못살겠다면서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서 바위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본 형들도 여기저기 들어서서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를 그리며 한없이 통탄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고 한다.

설문대할망신화는 할망제 본풀이(문무병), 그림이야기, 영상물, 김윤수와 이용옥굿 등으로 재생되었다. 돌공원의 신화적 형상화가 잘 되었다. 돌의 신비한 상상과 감성은 설치 미학의 감동으로 소통되고 있다. 생태적 공간과 풍수 발상의 조화 위에 설문대할망, 제주 할망이 살아나고 있다. 보는 이의 문화적 감동 압도와 더불어 친근한 제주 사람들의 인성이

고려되었다. 다만 본연의 제주 고유 인자가 더욱 보태져야 한다. 앞서 말한 신당의 장소성과 본풀이 축제성이 앞으로는 국제적 감각의 시각에서 녹여져야 한다. 장소성 위주의 올레처럼 느낌의 즐거움과 문화감성 시대의 축제적 재미를 지속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점이다.

창세신화유형의 텃밭은 마을 신당이다. 신당은 공동체 문화공간인 동시에 신인(神人) 교감의 현장이다. 신당에서 전승주체는 사제자로서 심방을 통해 신들의 본을 풀어서 듣고 신들의 권능을 몸소 느꼈다. 해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신당의 장소성을 이용하여 다면적인 문화행위를 하였다. 제주 사람다운 이치에 대하여 신당의 다양한 구술물(口述物)을 접함으로써 터득하였다. 본향당에 차려진 곳 정성은 제주도 사람들의 영성 느낌의 미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마음밭을 잃었다. 제주돌문화공원도 일부 신당을 재현해 놓았다. 신당의 돌 이미지가 신화적 상상력으로 접목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에는 송당마을을 비롯해 마을마다 수호신으로 좌정한 본향당신이 있다.<sup>29)</sup> 그나마 관리되고 있는 곳은 만년의 신전처럼 아름답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출신지역의 본향이 저마다 있다. 이곳은 선조인 조상이 정착하여 후손을 낳아 기른 곳이다. 이곳을 본향당이라고 하며 마을과 가족의 안위를 빌며 당곳을 봉제하는 사람들을 심방 또는 단골이라고 한다. 제주 올레의 원천은 신당과 집, 신당과 신당, 신당과 일터의 길에서 비롯된다. 길 위에서 우주를 읽고 신당에서 세상 넘어서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변시지 그림 속의 바람을 신의 음성처럼 느끼듯 융합적 인식이 필요하다.

신년이 되면 단골들은 본향당신에게 세배하러 가는 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선달그믐부터 마음과 몸가짐을 조심하며 정월 제일까지 정성을 다한다. 단골들은 일 년에 한번이나 두번 본향당곳은 조상신을 모시는 자손이 당신과 일체감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곳을 통해 단골들은 당신본풀이를 신화로 인식하며 당신을 숭모한다. 본

29) 현용준, 「제주도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창간호, 탐라문화연구소, 1982, 17쪽.

향당곳은 이러한 상황이 토대가 되어 이루어진다. 심방이 본향당곳에서 당신에게 봉제하여 올리는 당신본풀이는 신화 기능이 살아있다는 반증이 된다. 이같은 맥락으로 설문대할망제가 그러하듯이 본풀이의 기능을 테마파크에도 이미지로 살려내야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다.

제주도를 일만 팔천 신들이 사는 섬이라 한다. 신들의 내력이 밝혀진 고향이다. 섬에는 300여 개 자연마을이 있고, 행정구역상 등재된 232개 마을마다 전통신앙 성소인 본향당이 있으며, 다른 마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올 때 모시고 와서 본향당처럼 모시는 가지당들이 있다.<sup>30)</sup> 신당의 수는 400여 개소로 조사된 바 있다.<sup>31)</sup> 그 중 본향당 수는 175개며 현재 7군데가 폐당되고 3군데는 멸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32)</sup> 신당의 존재와 변화에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탈맥화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비신화의 원형현장으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 이제 제주 특유의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신당, 돌 관련 산당유적을 관리해야 한다.

조사자: 혹시 바다신과 관련해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용문: 여기서저가 무슨 말이 있는가면은. 저기 당이 있는데.

조사자: 어디예요?/이용문 : 요기 가면 불래낭할머니라고.

조사자: 예?/이용문 : 불래낭할망당이라고. 요 어른은 왜 불래낭 나무 아래에 모셨나 하니까. 옛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할망은 처녀인데. 그 할망을 강간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쫓아오니까 그냥 도망가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할망이.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해가지고 불래낭나무 아래에 와서 할머니를 모셨다.(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불래낭할망당 신화)<sup>33)</sup>

위 자료는 신당, 신격 모시기 형성과정을 말해준다. 신당들이 어떠한

30)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本鄕堂)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9, 24쪽

31)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제주시권 2008·서귀포시권 2009, 참조.

32) 김승연, 「제주도 송당마을 본향당의 곳과 단골신앙 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1, 1-3쪽.

33) 이창식 외, 『한국 해양 및 도서 신앙의 민속과 설화』,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6, 550쪽.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는 당신본풀이다. 당신본풀이에는 당신이 이웃 마을 당신들과 형제 자매 관계이거나, 부부 관계이되 부부 갈등의 결과, 별거하거나 별거 뒤에 첩을 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신들끼리 경쟁을 하고 경쟁의 결과 그 우열에 따라 다스릴 구역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부 관계의 신이 갈등을 겪은 뒤에 별거를 하고 남성신은 첩을 들이기도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 역시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는 흔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신화를 전승해온 사람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주도 당신본풀이는 신화와 공동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다각도로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당의 본풀이 축제 공연으로 작용하여 제주 사람들의 정신소(精神素)로 남아있다.

당신본풀이에 제시된 신들의 관계는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충분한 단서가 되기도 하며, 당신앙의 변화를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그런가 하면 당신본풀이는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지역공동체의 역사를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신당과 당신본풀이의 관련성은 제주신화의 독특함이고 그 신화적 생명력을 끊임 없이 창출한 요인이다. 당신본풀이를 통하여 이처럼 다양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은 당신본풀이가 지닌 구비서사시적 성격 때문이다.<sup>34)</sup>

신당에서 구연하던 본풀이는 구술신화로서 제주 사람들의 스토리텔링 원형자산이다. 설문대할망이 포선리 당캐할망의 당신화 편린에 유사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제주도 무속신화는 애당초 제주도 마을 신당에서 구연되었던 유래담이면서 장소설명담이다. 흔히 말하는 제의의 구술 상관물로 매력적인 내력담이다. 신화 속의 캐릭터는 제주도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닮았다. 제주 신당 경관은 아테네 신전보다 생태적(生態的)이다. 다른 나라 신화와 다른 가치다. 마을 땅의 생김새와 마을 사람

34) 강정식,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당신앙 연구」, 『한국무속학』 6집, 한국무속학회, 2003, 128쪽.

들 마음썸썸이에 따라 저마다 유별하다.

당신본풀이를 통해서 보면 본향당신들은 자신이 차지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알맞은 마을을 정해서 좌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들어온 신이 ‘마을도 땅도 내 차지다 다른 데로 가라’하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신이 차지하지 않는 마을을 찾아간다. 그렇게 한 마을에 당신으로 정착해 가는 당신의 노정기가 본풀이에 나타난다. 당신본풀이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마을 선주민이 정착지를 선정해서 삶의 터전을 개척했던 과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향을 받는 신성한 장소이고 신당이 된다.

제주도당 이름은 본향당(本鄕堂), 이렛당(七日神堂), 여드렛당(八日神堂), 해신당 등으로 불려진다. 당은 산, 숲, 냇물, 연못, 언덕, 물가, 평지의 나무나 돌리 있는 곳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당이 있는 곳은 구룡, 전담, 천변, 수림, 암굴, 해변 등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이 있는 곳은 과거 마을이 설촌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성소(聖所)로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지속시켜 온 ‘우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마을이 이동과 변천에 따라 당의 위치가 옮겨지기도 한다. 당을 옮기는 사람들도 당신은 신성한 곳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와 비슷한 영역에 당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sup>35)</sup>

본향당신 직능은 마을의 토지, 산수, 나무 등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마을의 호적, 출산, 사망, 생업 등 생활 전반을 차지한다. 본풀이에서 심방이 ‘어디가면 무슨 당, 어디가면 무슨 당’이라고 당명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웃송당 백주할마당’은 송당본향당의 명칭이다. 송당마을에 웃송당이라는 자연마을이 있고, 당오름에 백주할망이 당신으로 좌정해 있는 본향당이 있다. 이렇게 제주도의 당은 산, 숲, 냇물, 연못, 언덕, 물가, 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 있다.<sup>36)</sup> 무덤의 돌담처럼 돌의 신역 표시 자체가 신성성을 상징한다.

35)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7, 36쪽. 이어서 37쪽에서는 당의 종류를 통합형, 분리형, 공유형, 독좌형으로 나누고 있다.

36) 김승연, 위의 글, 21쪽

신당을 보면 팽나무-폭낭-를 비롯하여 짝찬 신림(神林)이다. 신화 속의 우주나무다. 송당 본풀이당과 월평 다라콧당에는 하늘올레로 향하는 명품 나무들이 산다. 대평리 돌담, 와흘리 돌담, 종달리 생계남 돈지당, 마라도 애기엿개당, 세화리 갯것할망당 등은 돌담, 돌담 안의 성체가 여신격의 할망이다. 동굴 신당도 있다. 용강케당과 김녕케내기또당은 굴을 이용한 신당이 자리잡았다. 삼성혈신화처럼 신화주인공이 굴에 좌정한 까닭이다. 숲과 굴이 어울려 성전이 된 멋진 신당은 무수히 많다. 거기에는 할망과 할방 신들이 좌정하고 있다. 제주 건입 복신미륵이나 동회천 석불미륵(회천동 화천사)과 같이 민중불교의 신당도 있다.

신당은 나무와 궤(굴), 돌 등이 어울려 신성성과 영성(靈性)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제주도 신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다. 신당은 돌의 단단함처럼 여전히 살아 있다. 이형상이 불태우고, 일제강점기와 4.3 사건 그리고 새마을운동 때 불타고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나마 신당은 살아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신령스럽게 신당의 신격을 위하였다. 신당은 이처럼 제주도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인 동시에 신화창조의 원형자산이다. 제주 사람들에게 힘든 삶 속에서 위안을 받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했던 성소(聖所)다.<sup>37)</sup>

여기서 할망의 창조력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제주도 신당에는 할머니나 어머니같은 생명성, 치료성, 영혼성 등이 두루 녹아 있다. 애기또방쉬, 당올레 소통, 나락(밥)의 풍요, 멜(멸치)의 도깨비, 돛(돼지)의 의례와 나눔 등 민속 유전자가 짙혀 있다. 물색과 제물의 정성 이미지, 뱀과 친구간의 생태 이미지, 삶 속의 치병 치유 이미지는 실로 오래된 민속소(民俗素)면서 정신소다. 이것이 서사무가와 같은 신화스토리와 맞물려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해 주었다. 이 원초적 향수감은 신화의 고향이라는 코드다.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행복을 일구려 했던 제주 어머니들-해녀 여성성과 신화 속의 여신 감성-의 눈물 어린 보물창고이면서

37)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11, 17-22쪽

탐라의 냇불이다.<sup>38)</sup> 할망의 민속신앙적 원리에는 치유와 화해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조각나서 흩어져 토막진 설화<sup>39)</sup>가 퍼즐처럼 껴여 설문대할망 거인신화로 존재한다. 이 조합된 신화가 제주도돌문화공원으로 창출되듯이 제주도 수많은 당신화는 테마파크를 비롯하여 창조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 원천적 출발 무대는 본풀이 신당이다. 제주신화는 앞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민속원형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화스토리텔링의 장소성은 신당이다. 이러한 활용 측면에서 신당 예전 모습의 유지와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그 동안 이 신당의 장소성을 소홀히 하였다. 신당은 제주도에서 문화재로 최근까지 5개 밖에 지정되지 않았다. 필자는 1993년 2월과 2012년 7월 문무병 등과 주요 신당을 답사하였다. 20년 전보다 최근 신당 보존 상황이 더 나빠졌다.<sup>40)</sup> 제주문화의 본향, 메카로서 신당은 문화관광자산으로까지도 인식되지 못했다. 마을 문화경관 보존의 가치를 강조하는 요즘, 왜 신당의 복합문화유산적 가치를 읽지 않았는지 아쉽다. 그렇다 예전처럼 돌릴 수도 수 없다. 다음 장에서 말하겠지만, 신당 원형 보존과 주요 본향당 본풀이 구연 재현, 마을 연고 심방 육성 등을 묶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복합문화재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이다.

### III. 설문대할망신화의 활용과 관련 전승물 보존 방향

과거 백운철의 목석원은 1980년대부터 돌의 테마파크 경쟁력을 처음 확보한 경우다. 경쟁력 있는 테마형 문화산업은 목석원-제주돌문화공원이 일찍 시작하였다. 돌박물관의 설치미술에는 제주도 지역문화 위주의 스토리텔링이 주도한다고 말해도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적 관계

38) 전경수, 「탐라 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49쪽.

39)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232쪽.

40) 이창식, <한국신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문무병, <제주신화와 문화콘텐츠>로 제주교육박물관 스페셜강좌(2011. 7.) 동시 참여.

작용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은 스토리이다. 세계화도 한 몫을 한다. 국경, 민족, 이념, 세대를 초월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흥미로운 힘은 그 지역 삶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에 있다. 신화의 스토리텔러 기획력은 스토리텔링의 통찰과 오래된 미래 가치의 통섭과 연관되어야 한다. 원래 문화콘텐츠가 서로 합쳐지거나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하고 있다.<sup>41)</sup> 신화 원천자료가 여러 장르에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다양한 킬러콘텐츠 결과물이 나온다. 설문대할망 신화의 재구성을 <설문대의 사랑><sup>42)</sup>으로 창작한 사례가 있다. 과거 신당 마당공연은 올레투어리즘의 축제항목과 지역공동체 예술마당으로 살릴 수 있다.<sup>43)</sup> 특히 제주도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매우 적절한 블루오션 자원이다. 더구나 설문대 혹은 제주 본풀이 여주인공의 변신은 무궁하다.

제주신화는 신당의 유형적 가치를 동시에 살펴야 값지다. 당신화(堂神話) 스토리텔링은 매력적이다. 제주 길 위의 올레 경관에다가 신당과 신당, 마을과 신당, 신당과 마을 사람들, 사람들과 집마당이 이어지는 신화 올레의 측면을 다시 읽어야 한다. 올레로 이어지는 마당의 가치를 회복해야 미래가 있다. 전통사회에서 제물을 정성껏 차려놓고 심방의 할망캐릭터 구연은 신당의 생태적 잠재력이고 역동적 힘이었다. 본풀이의 메카인 제주신당은 세계 최고의 신화 장소성을 내포하고 있다. 종교적인 측면보다 공동체의례의 축제적 재미 요소와 스토리텔링 측면을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신화 속의 우주나무와 고대신화의 돌신전이 생생하게 숨쉬는 제주신당은 오래된 미래 가치인 셈이다. 제주도 본풀이는 엄숙한 서사만 존재하지 않는다. 축제적 오감의 나눔문화가 풍성하다. 치유, 생산, 화해, 축복, 호혜 등의 공동선의 가치가 통한다. 설문대할망 음문 이야기<sup>44)</sup>

41) 이창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9, 64쪽.

42) 양영수, 『세계 속의 제주신화』, 보고사, 2011, 287-380쪽.

43) 중국 장예모의 소수민족 인상유상저 사례와 아프리카 짐브웨 조각공동체 텅게넨계의 쇼나조각작품 사례 참조.

44) 김영돈 조사 설문대할망설화 각편,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11, 11-23쪽.

처럼 역설적인 치유감성과 화평의지가 신당에서 굶눌이로 풀린다. 신당 마당의 장소성과 신화성에서 신비의 소통공간을 되찾아야 한다.

지역개발의 도시브랜딩 정책방향 중 장소성은 문화 또는 지역의 기반이며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고, 지리적 실체로서의 장소이다. 마케팅적 관점으로 본 장소는 일정한 공간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유된 가치, 신념, 상징을 보유한 지방정부와 기업 등의 집단이 주체가 되어 활동공간 설계와 부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장소마케팅은 1980년대 유럽의 도시와 관련된 문헌에 등장했는데, 특정 지역에 관광객과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신당 문화전략의 장소마케팅을 거듭 주목해야 한다. 제주도 여건, 시장, 경쟁, 사례, 컨셉, 전략 등의 수단을 통해서 장소이미지 홍보, 시설물·상징물 건축, 문화레저형 스포츠 행사, 문화감성형 기업 유치기구 조성, 역사적 장소 보존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설문대할망신화의 장소성은 소중하다. 제주도 여성 이야기로써 설문대할망신화는 제주인의 주체적 활동으로 소통되어야 한다.<sup>45)</sup>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제주 사람들의 협동성과 통합의 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도시의 이미지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46)</sup> 제주도 신화창조도시의 랜드마크를 위해 설문대할망신화와 본풀이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돌문화공원의 2단계사업으로 들어설 설문대할망전시관-설문대할망융합관이 좋을 듯함-에는 이러한 발상과 아이디어가 종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주신화의 정체성을 위주로 한 설치예술이었다면, 세계화 위주의 융복합 제주신화 테마파크<sup>47)</sup>의 소통과 공감이어야 할 것이다.

45) 차옥승,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 『동아시아 여신 신화의 여성 정체성』, 이대출판부, 2010, 124-133쪽.

46) 황동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브랜딩 방향과 과제」,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학술세미나집』, 2012, 19-22쪽 정리.

47) 최혜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2006, 155-157쪽.

<표> 설문대할망전시관(신화교육체험관) 운영계획(안)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예시
체험항목	의례	- 한라산 천신제, 설문대할망제 - 주요 본당 본풀이 행사 연계 - 마을 신당제 의례
	전통교육	- 신화 관련한 프로그램 : 상상력과 감성 - 신방과 대화(토론)
유적답사	신당투어리듬	- 제주 신당 1코스(1일) - 제주 신당 2코스(2일)
	지명관련답사	- 지명유적 코스 답사 - 관련 역사 유물현장해설
신화예술	창작예술	- 설문대할망제, 신화축제 퍼포먼스 경연 - 신화 스토리텔링 공모와 발표회 - 신화콘텐츠 제작(ucc)발표 - 신화문화상품 제작팀 구성
실천행사	문화교육 및 학습	- 제주학 학교교육 연계 활동 - 신화문화관, 제주신화대학 - 정례 학술세미나(신화학회, 신화학연구소) - 세계신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 - 신화피칭워크샵 추진
	지역홍보	- 신화테마파크 홍보 - 설문대할망전시관 제주탐방1번지 부각 - 국제적 신화 거점 이벤트 전시기능 강화

<표>에서처럼 계획하고 있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을 고려하여 현재의 조성 인프라와 연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성과 미래성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데 있다. 설문대할망의 일련의 피칭워크샵은 현재적 의의가 입증된다. 설문대할망축제와 제주도의 자연유산 및 신당 등 여러 유산들을 세계신화축제의 랜드마크적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로 키워야 한다. 브랜드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설문대할망 키워드에는 탐라 정신적 구심력과 신화적 공동체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다.

제주도는 특유의 고유인자가 있다. 제주도의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론의식용 집행방향도 역기능으로 작용된다. 제주지역의 정체

성 확립과 특수성 부각을 위한 오래된 미래자원 중 하나가 설문대할망 유산과 제주돌문화공원 아이콘이다. 신화의 상상력은 생태공학, 정보공학, 유전공학, 장수의료공학이라는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예술 시뮬레이션 시뮬라크르로 살아난다.<sup>48)</sup> 제주캐릭터 테마파크 마을 조성, 신화캐릭터 케넷깃또 제작, 제주말 캐릭터 따꾸 마케팅 등이 선보였다. 그러나 이들 유산의 홍보가 얼마되지 않아 일방향성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가능성만 보인다.<sup>49)</sup>

신화섬 제주도 가꾸기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제기한 제주신화 스토리텔링 관련 문화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신성장지식산업 분야다. 올레의 잠재력과 비교가 안된다. 신화섬 브랜드 만들기의 특별기구가 필요하고, 피칭워크샵의 중심지는 제주돌문화공원이어야 한다. 신화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합적으로 공유하며 공동체의 공동성 추구하고 직결되는 포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 지역민, 외부 전문가, 출향인사, 제주기업가 등의 의지를 모아 생산적 담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정통성과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

신화 관련 유형 장소성과 제주돌문화공원의 예술성의 가치를 전제로 문화발전 장단기 계획 속에 반영되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매력적인 브랜드의 특징은 반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제주신화가 그 무한의 잠재력을 지녔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공연문화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sup>50)</sup> 끊임없이 재창조의 작동성과 변화욕구의 참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일찍 설문대할망 자체가 이러한 요소들을 시사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창조적 문화유전자는 제주도의 미래이면서 대한민국의 꿈 자원이다. 제주도민, 제주대학교, 제주돌문화공원, 신화학자, 예술가 등 눈덩어리 굴리기의

48)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8, 9쪽.

49) 이창식,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가치창조」, 『어문논총』 5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50쪽.

50) 페티김의 1966년 창작뮤지컬 <살짜이 읍서예>(배비장전)를 제주신화로 재창출할 필요가 있다.



컨버런스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문대할망 관련 신화산업적 발상도 인문학적 검증과 가치창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더구나 남아 있는 제주도 마을 신당은 잠시 놓친 복합문화경관이다. 고통스럽게 지켜온 신화 속의 마을 브랜드다. 신당마다 제주다운 미학성(美學性)이 내재되어 있다. 마을마다 독특한 신당 관련 이미지화와 브랜딩은 제주문화의 독자성을 통해 세계화의 신화올레로 나아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주 본풀이의 장소성에 대한 응집력, 신당의 가치창조는 무한한 변신이 가능하다. 백운철표 제주돌문화공원이 이를 실천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널리 공감하고 있다. 이 신당의 마당과 제주신화를 통째로 묶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 바다마당, 신령마당, 축제마당 등을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가치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濟州一堂)이 보여주었다. 이 사례를 보면, 칠머리당영등굿은 해마다 음력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건입동(健入洞)의 본향당(本鄉堂)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의례다.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문화재로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sup>51)</sup> 제주 신당 구비무형자원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부여받은 셈이다. 영등굿, 해녀굿의 전승과 보존의 중요성이 감안된 것이다. 이는 첫단추에 불과하다. 신당, 신화, 돌, 심방 등을 복합적으로 묶어 지속적으로 목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아울러 복합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칭)를 제안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돌민속자원과 신화 연계의 전략에는 정체성 위주의 보존책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신화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지금 여기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것은 지역성과 현대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답게 신당과 구술

51)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원래 옛날부터 주기적으로 해온 영등굿의 한 종류로, 영등신(神), 영등대왕을 대상으로 하는 심방 무속적 행사이다. 문무병책 참조.

본풀이의 통합적 보존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당의 독특한 기능에 비해 그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 문무병의 신당 연구생애사를 주목해 보면, 신당의 방치와 멸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돌과 같은 유형문화도 무형문화를 통해 가치가 있다. 무형문화 없는 유형문화는 존재하기 힘들다<sup>52)</sup>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조례가 강구되어, 이러한 측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 협약 제2조에 의거 1975년부터 세계유산 목록을 유지해 오고 있다. 문화유산은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직결되는 중요 요소로 이는 각국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 등 해당 민족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대변한다. 각국의 문화유산을 잘 보전함으로써 인류는 전 세계의 문화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은 창조의 원동력이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써 관광산업과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공예, 지식, 삶의 예지 등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면서 자원의 고갈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해야 한다.

문화유산은 역사, 문화, 자연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이기에 인류의 진화와 역사적 변천과정, 전통, 과거의 삶, 사상, 예술 그리고 현대의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로 인해 전 세계 다양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기관과 단체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유산과 연계한 교육방법으로써 제주학 차원이 기획되어야 하고, 동시에 제주도 문화유산을 소재로 세계화 다양성 교육에 기여하는 통합 방법론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산관광은 문화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성장세가 가장 높은 관광상품이며 유산관광에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것은 유산의 인지도 향상 뿐 아니라 국제관광객의 대폭적인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가능하다면 많은 수의 세계유산을 등재

52) 임재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민속원, 2009, 20-24쪽.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절대적 상징과 아이콘임에 틀림이 없다. 문화관광의 주 수입원으로 창조경제 도움과 아울러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의 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제주도만큼 이러한 문화감성시대 패러다임에서 더 적합한 곳이 없다. 이러한 점 고려하여 신화학은 필두로 민속학, 공연문화학, 제주학, 문화콘텐츠학, 인류학, 문화경영학 등 학제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설문대할망축제와 제주도의 자연유산, 신화적 융합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제주도 신화유산의 세계화 문제는 통합적 학제 연구와 동시다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생 전략이 우선해야 한다. 창조적 신화 가꾸기 동참을 이끌기 위해 신화피칭워크샵이 지속적으로 열려야 한다. 기존 부정적인 선입관 털어내기의 공감적 전승과 지역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도신화 복원과 마을 신당신화유적 연계 재현이 필요하다. 본풀이의 본향을 회복해야 한다. 제주돌문화공원의 신화적 상상력과 장소성을 본래 삶의 문맥 속으로 연계해야 한다. 신화섬 브랜드를 통해 신화축제의 진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 신화 관련 문화마을 만들기가 필요하다. 신화 관련 지방문화재, 국가문화재, 세계문화유산 유무형문화재 등재목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 준비위를 제주돌문화공원과 신화학연구소에 두어야 한다.

설문대할망축제의 신화성과 돌문화공원,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신당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계승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 수준의 학술회의가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 제주신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sup>53)</sup> 킬러콘텐츠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지역민들의 고유문화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가치를 차별론(only one)의 시각에서 주목하여 다각적인 활용의 문화콘텐츠를 찾아야 한다. 신화 활용의 명품론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가 돌 관련 자연경관을 강조하여 지정해야 한다. 신화를 경관자원과 연계하는

53) 이창식, 「제주도의 신당과 신화」, 『로컬리티의 인문학』 7/8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문화콘텐츠산업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신화창조도시로서 제주도상이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제주학적 마인드가 지역창조담론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sup>54)</sup> 제주도 지역문화는 향토색을 가진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창조하여 왔던 삶의 총체적인 것을 지방문화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sup>55)</sup>

제주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적인 민속문화가 잘 보전된 관광지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킬 만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는 지역성을 갖는다. 그것은 지리적 환경이 서로 다른 내적 구조를 가지며 인간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무속신앙에서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제주도는 신화자원과 관련 유적 신당 등이 특히 어렵게 전승되는 지역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형 신화자원이 풍부한 것은 그 자연적 환경 조건에 의한 섬 고형(古型) 유지와 생활고에도 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마을당 혹은 분향당 신앙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사당이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한반도부와는 확연히 대별되는 특징이다.<sup>56)</sup> 제주도 한라산 산록평원의 경우 정착농경사회에 접어들고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립된 분향당은, 마을의 중심이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당신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누구나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제의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의 지킴이 신으로 활발하게 신앙시해 왔다. 제주도의 굿의례는 일상적인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제주도는 신앙 대상을 신을 성별로 구분해 볼 때 여신의 비중-현장 중심의 신화 전승주체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이 특별히 높고 그 내용이 외향적 여신지향성이다. 제주도는 여다(女多) 섬 이미지는 제주 환경 때문에

54) 김형국, 『고장의 문화 판촉-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사는 길』, 학교재, 2002, 46쪽.

55) 한현심, 「지역문화유산의 발굴과 발전방안의 연구」,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2003, 4-5쪽.

56) 송성대, 「제주섬의 Regionality와 Regionalism」,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9, 2-3쪽.

형성된 것으로, 실제 여성의 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에 관련된 것이다.<sup>57)</sup> 설문대할망 이미지가 그 중심에 있다. 할망의 치유적 마음이 유전자처럼 전승되고 있다.

제주신화의 전통적 문맥을 통해 신당의 구연무대, 심방의 역사와 기억, 본풀이의 문학적 상상력, 해녀의 할망 이미지 등을 통합하여 읽어야 한다. 보존과 전승 대책 역시 이러한 인식과 역사적 맥락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설문대할망의 선편적 문화산업화 강점을 계속 살려 가되 제주신화 전반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통섭적 논의가 필요하다.<sup>58)</sup> 학제 간의 독식 사고를 벗어나 융합하여 치유와 흥미의 신화성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신화유산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문화재보호법은 개혁 또는 조례 입안이 필요하다. 과거 선입관을 털어벌여야 한다.

돌을 통한 신화적 접목은 가치창조의 사례다. 운명처럼 돌공예에 공연예술성과 설치조형술이 만들어낸 할망접신의 행위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백운철은 신화성의 가치를 한발 앞서 선보인 것이다. 제주도다운 세계명품을 꿈꾸지 못하던 시기에 그 꿈을 돌에 남보다 먼저 새긴 것이다. 자연섬도 가꾸어야 낙원이 된다. 신화성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 세계 유일의 신화성 브랜드는 경쟁력이 있다. 신화유산의 문화감성적 선진화는 한류의 제주도 붐을 만들 수 있다. 그 랜드마크의 문화기술력은 앞으로 수출 품목이 될 것이다.<sup>59)</sup> 조앤, 톨킨, 캐머런, 백운철 등이 말하는 심석(心石)과 장점을 지속가능성으로 신화꽃을 피워야 한다. 여전히 신화유산은 인류의 영원한 창조적 민속원형이다.<sup>60)</sup>

57) 김정숙, 『자청비. 가문장아기. 백주또』, 각, 2006, 33-45쪽.

58) 특정 신화주제로 학술회의는 다양하게 개진되어야 한다. 중국 운남성 이족창세신화학술회의(2011. 8. 16. 운남성 초웅시)에서 필자가 설문대할망신화의 테마파크(제주돌문화공원)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삽입하였다.

59)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등의 소수민족 신화유산에 대하여 이 점을 고려하여 민족정체성과 신화창조론이 민족모순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

60)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산업 영역은 넓다. 앞으로 다양한 국면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제안의 다소 주관적 측면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다. 이

## IV. 맺음말

돌 연관 신화의 상생적 세계관을 통해 제주신화의 새로운 국면 읽기와 활용론을 시도해 보았다. 특히 설문대할망 테마화를 주목하였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신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전략의 모델이 된다. 신화 관련 유무형 전승물에 대한 다양한 보존책이 제기되었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설문대할망설화와 할망제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신화의 세계화 방향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전통적인 것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융합적 가치 혁신이 필요하다. 이 연장선에서 이 글에서는 돌과 설문대할망의 신앙적 요소, 신당의 유형적 가치와 신화의 조형예술의 진행형-설문대할망 캐릭터 강점, 제주돌문화공원의 조성과 앞으로의 계획-사업을 염두에 두면서 제주 신화학 향부론(鄕富論)을 제기해 보았다.

돌 관련 신화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조의 사례로 제주돌문화공원의 향토성, 예술성, 미래성을 주목하였다. 제주인 삶의 시작과 끝, 그 이후까지 함께한 돌의 구비적 신화는 감성과 상상력의 원천이고 민속원형인 섬이라고 보았다. 설문대할망신화가 그 중심에 있어, 구술 본풀이신화 유형들과 더불어 신화의 섬 브랜드를 키울 수 있다. 제주도는 신화의 섬 브랜드 가치가 있음을 진단하였다. 제주신화의 현장, 신당은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세계유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확대하여 살폈다. 돌과 나무 위주로 된 신당은 모셔진 신격과 그 내력담, 기능, 전승자 등 동시다발로 존재하는 실체다. 그 고유의 가치는 치유와 화해-풀이와 굿놀이의 감성원리-인데 지금 여기의 트렌드에도 부합한다. 실제로 설문대할망, 제주할망의 키워드에는 고침과 풀어줌의 생태적 상상력이 작용하여 제주 사람들의 정신소(精神素)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신당이 중요한 점은 제주신들과 제주 사람들의 본향으로 신화 재생과 소통의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돌 관련 신당, 신화, 심방 등을 묶어서 전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재보호법이 필요하고, 이 틀 속에서 현대적 계승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 문화재청과 차별화해도 된다. 돌 신당 마을 복원, 신당의 기능별 차별 지정, 심방 구연 복원, 본풀이 교육 등 동시다발 관리체계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 사이 신화유산의 문화산업에 걸림돌이 된 것은 이러한 고민이 부족하였던 것에서 연유하고, 앞으로 제주문화의 세계화 담론에 이 점을 고려하여 융복합 가치창조론이 거듭 요청된다. 신화섬을 제주도 신성장지식산업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명소 명장 명품 제주돌문화공원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신화창조도시 프로젝트 구상-도신화브랜딩에 대하여 본격적인 피칭워크샵이 추진되어야 한다. 피칭워크샵을 통해 신화자원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문화소통의 행복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그 바탕에는 신화학회(가칭), 신화학연구소(허남춘) 등이 있어야 한다.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신화학술회의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제주신화의 정보와 연구를 확장해야 한다. 신화학 연구 패러다임도 이러한 신화콘텐츠 분야 쪽으로 점차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의 돌 활용 신화마인드를 주목하였다. 세계 신화유산의 메카로 제주섬에 부합하는 제주돌문화공원의 신화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을 살폈다. 앞으로 세계 소통의 장소마케팅과 브랜드 확장에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문화창조경제시대에 한국형 문화콘텐츠산업의 선구적 모델이 될 수 있고, 이 테마파크 문화기술력을 앞으로는 수출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비교, 동아시아 연대 교류, 한류의 K-신화콘텐츠 붐 조성 등 동시다발적 지속 과업을 새롭게 기획해야 한다. 향후 작업에는 융합적 학제 협력마인드가 절실하다 하겠다. 앞으로 들어설 설문대할망 전시관(백운철의 신화조형론 집약과 확장 그리고 선점)에 일차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란다.

▷접수일 : 2013.09.30 / 심사개시일 : 2013.10.08 / 게재확정일 : 2013.10.25

<참고 문헌>

- 강정식,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당신앙 연구」, 『한국무속학』 6집, 한국무속학회, 2003.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고대경, 『신들의 고향』, 증명, 1997.
- 고성보 외, 『제주도의 돌담』, 제주대출판부, 2009.
-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 김소윤, 「한국 거인설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컨셉디자인 연구 : '제주도 설문대 할망 전설' 을 중심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10.
- 김승연, 「제주도 송당마을 본향당의 굿과 단골신앙 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1.
-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정숙, 『자청비가른장아기·백주또』, 각, 2002.
- 김형국, 『고장의 문화 판촉』, 학교재, 2002.
-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本郷堂)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9.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서』, 2003.
- 양영수, 『세계 속의 제주신화』, 보고서, 2011.
- 윤기혁,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2008.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이윤영·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 이창식, 「설문대할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9.
- 이창식,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가치창조」, 『어문논총』 5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11.



- 이창식, 「제주도의 신당과 신화」, 『로컬리티의 인문학』 7/8호,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2011.
- 임재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민속원, 2009.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전경수,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 정진희,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19호, 국문학회, 2009.
- 제주도청, 『제주도 큰굿 자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제주돌문화공원 백서, 『돌문화전시관 영상물』, 2005.
- 제주돌문화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stonepark.com>).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제주시권 2008·서귀포시권 2009.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2002.
- 차옥승,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 『동아시아 여신 신화의 여성 정체성』, 이대출판부, 2010.
- 최혜실, 「문학작품의 테마파크화 과정 연구」, 『어문연구』 32,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2004.
- 한현심, 「지역문화유산의 발굴과 발전방안의 연구」,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2003.
- 황동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브랜딩 방향과 과제」,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학술세미나』, 2012.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서, 2011.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 Abstract

*Myth of Seolmundae-halmang and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olmundae-halmang / Lee Chang-Sik(Semyung Uni. Prof)*

It is the giant type goddess who is handed down that Dol, Sindang, the Seolmundae-halmang created jeju Island. As for the jeju myth, there is the number of to secure land mark-value sharing innovation- called a myth of what a myth little truth acts with a durability of emotion, and there is it, and jeju Island borrows from standing. As for the absolute transcendencer which is popular in Seolmundae-halmang tale, there is a mystery result ring-shaped anger in a respect. because I have to switch to value sharing inno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 globalization of a connection festival product.

Sindang(神堂) connection place assets to show real evidence of a tradition are i construct IT and scientific integration, and a myth of Seolmundae-halma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rites down a picturesque scenery miscarriage and an imaginative power back mediately, and I be understood and make Storytelling bank, and to do an imaginative power.

Jeju Island tale be devoted to what is propelled with globalization center assignment of jeju culture and jeju dol-culture Park for the 21st century by doing with the jeju stone culture park and does about a convergence with first priority with jeju specialty self-government morality future stratagem policy.

Key word: Jeju Island tale, value sharing innov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olmundae-halmang tale, Culture contents, Storytelling, jeju.